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예측 요인과 정책적 함의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cross Developmental Stages and Implications for Elderly Policy

윤강인(Kang-In Yun)¹, 성미애(Miai Sung)^{2*}

¹Department of Consumer &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Korea Funeral Culture & Policy Institute,

²Departmen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bstract>

Using data from the 2015 Korea Welfare Panel Study, we examined the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cross development stages (young-old, mid-old, and old-old)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elderly policy. For this purpose, we selected 1,364 elderly people who lived alone but preserved their family relationships, and were 65 years of age or older. Separate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e three groups of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verall,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as higher than moderate level, and they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ir everyday lives and less depressed. However, there were group differences: the young-old group was more satisfied than the old-old group with in their everyday lives and less depressed than the mid-old and old-old groups. In the young-old group,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non-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disposal income, house ownership, dietary deficiency, cost of living, and public pension. In addition,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non-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dietary deficiency, and 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In the mid-old group,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housing non-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disposal income, and dietary deficiency.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housing deficiency. In the old-old group,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and non-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health. Therefore, 'health' and 'family' are important key concepts to consider when making elderly policy.

▲주제어(Key words):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단독거주 노인(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전기 노인(young-old), 중기 노인(mid-old), 후기 노인(old-old)

• 본 논문은 윤강인의 석사학위논문인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예측요인”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6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 Miai Sung, Departmen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86 Daehak-ro, Jongno-gu, Seoul 03087, Republic of Korea, tel: +82-2-3668-4648, E-mail: eliza_s@knou.ac.kr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단독가구를 이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을, 노년시기별로 고찰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노인 부양의 주체에 대한 생각이 가정에서의 자녀 부양에서 벗어나 개인 및 국가의 부양으로 변화됨에 따라, 노년기 거주 형태도 변화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단독가구를 이룬 경우가 2010년에는 10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200만 가구, 2032년에는 3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이러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단독거주가 노년기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부터 독거노인이라는 용어로 단독거주 노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 선행연구는 크게 단독거주 노인의 실태 및 가족해체 유형에 대한 연구들(K. H. Jeong, 2011; J.-K. Lee & J.-H. Kim, 2013; G. H. Shin, 2012), 자살, 우울, 죽음 불안, 고독사 인식 등 단독거주 노인의 부정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I. S. Jang, S. M. Kim, 2002; J. H. Jeong & J. S. Kim, 2015; Y. S. Kim & J. Kim, 2009; S. Lee et al, 2014; H. H. Shin, S. W. Choi, J. Park, & M. A. Han, 2014; J.-A. Son, S.-R. Suh, & M. Kim, 2015), 단독거주 노인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연구(Y. E. Oh & J. H. Lee, 2011), 단독거주 노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본 연구들(Y.-R. Kim, C.-S. Song, & C.-S. Lee, 2013)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노년기에는 자녀의 부양을 받으면서 지내야 다복하다는 전통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단독거주 노인의 삶을 부정적인 틀로 바라보면서 연구를 진행한 측면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이 특별하기 보다는 사회 변화에 따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형태라는 인식(Y.-M. Ko, 2013)을 같이하면서,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의 정서적인 상태와 함께 개인이 삶을 영위하면서 이룩한 성취감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결국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G.-H. Han & J.-Y. Son, 2012), 자신의 생애에 대한 평가이며 성공적인 적응상태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M.-L. Oh, 2015).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단독거주하고 있는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들의 삶의 질을 이해하고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함께 공존한다는 주장(Bradburn, 1969)에 근거해서,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우울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노년기가 장기화되면서 노년기 내에서도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2012)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여 1970년에는 61.9세에 머물렀던 평균 수명이 1990년에는 71.3세, 2010년에는 80.8세로 증가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84.3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증가로 단독거주 노인 내에서도 노년시기별로 삶의 태도나 가치관, 일상생활 적응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독거주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이들을 단일 범주로 인식하면서 접근하는 시도는 각 시기별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독거주 노인을 노년시기별로 전기(65-74세), 중기(75-84세), 후기(85세 이상)로 구분해서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경제적 특성(가처분소득, 생활비 충족, 주택소유, 주생활 결핍, 식생활결핍), 건강 특성(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가족관계 특성(물리적 갈등, 비물리적 갈등), 사회적 자원 특성(공적연금수급,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련성을 보고자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거주지역은 통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단독거주 노인의 노년시기별 다양성에 주목하여 이들을 전기 노인, 중기 노인, 후기 노인으로 나누고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살펴보고,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생활만족도, 우울)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생활만족도,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단독거주 노인을 노년시기별로 구분해서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각 노년시기

별 단독거주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실증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 정책이 궁극적으로 노년기 내 다양성에 주목해야함을 시사해 주며, 이러한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1. 단독거주 노인의 정의 및 노년시기 구분

단독가구는 구성원이 단 한 사람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유지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가구이다(H. Im, 2015). 그 가운데 단독거주 노인 가구는 노년기를 맞이한 가구원 단 한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를 비롯한 친족 및 비친족 중 어느 누구와도 동거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한다(H. W. Lee, 1998).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독가구 노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독거노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독거노인이라는 용어에는 "사실상 부양해 줄 가족이 없어서 가족이나 자녀들로부터 보호 및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이라는 정의(M. Y. Kim, 1997)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외감과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하면서 고독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인한 무력감, 머지않아 다가올 죽음에 대한 문제 등을 경험하는 계층"이라는 정의(Y. M. Choi & S. J. Lee, 2003) 등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는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도 단일 범주에 들어가는 집단이 아니라 성, 연령, 경제적, 신체적 건강 등 다양한 지위 및 자원에 있어 차이를 지닌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단독거주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단독거주 노인 내에서 집단 간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독거주 노인 내 집단 간 다양성의 근거는 연령에서 찾았다. 노년기에 연령은 생애주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고(H. M. Kim & Y. H. Choi, 2011; Y. S. Ko, A. R. Son, & Y. S. Choi, 2001; H. J. Lee, 2013; S. S. Lee & Y. E. Cha, 2003; I.-G. Oh, 2012), 자아통합감은 낮아진다(S. O. Kim, M. H. Park, & Y. J. Kim, 2006; M.-R. Lee, 2012). 또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아지고(H. Y. Kang, N. S. Seo, & Y. H. Kim, 2004; J. H. Kim & Y. M.

Jung, 2002; S. Oh & Y. Ko, 2015; G. Shin & E. K. Kim, 2014), 건강수준도 저하되면서(H. Y. Kang, N. S. Seo, & Y. H. Kim, 2004; J. S. Sung & C.-S. Park, 2005), 신체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곧 삶의 질과도 부정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연령은 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공유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문화적 현상, 가치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코호트를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C.-S. Kim, 2007). 이에 따르면 같은 노년기에 속한 개인이라도 연령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75세를 기준으로 노년 시기를 구분한 연구들(C.-H. Kim, 2014; H.-R. Kim, 2012; N. H. Yee, 2014)과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노년 시기를 구분한 연구들(Y.-J. Choi, 2009; Y.-H. Kim, 2013), 그리고 전기 노인(65~74세), 중기 노인(75~84세), 후기 노인(85세 이상)으로 노년 시기를 구분한 연구들(H. Y. Kang, N. S. Seo, & Y. H. Kim, 2004; Y.-M. Ko, 2013; G. Shin & E. K. Kim, 2014; M.-R. Lee, 2012)을 참고해서, 단독거주 노인이 점하고 있는 노년시기를 전기 노인(65~74세), 중기 노인(75~84세), 후기 노인(8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 분류에 따른 연구를 보면, 각 노년 시기별로 교육 및 경제적 활동 수준, 삶의 만족도, 인지 기능, 영양 상태, 이웃 및 친구 등 지지 자원의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예측요인

심리적 복지감이라는 개념에는 심리적 안녕상태(well-being), 복지(welfare), 만족(satisfaction), 행복(happiness), 적응(adjustment), 사기(morale) 등 여러 의미가 혼재해 있다(G.-S. Lee & W.-K. Lim, 2012). 일반적으로 심리적 복지감은 정신 건강의 긍정적인 상태(K. Han & S. Yun, 2001),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M. Cha, 2015; K. J. Seo, 2014),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상태(J.-M. Bae, 2012; J.-L. Lee, 2012) 등 심리적 측면에서 심리적 복지감을 정의하려는 시도와, 평가적인 지표로 삶의 적응상태(K.-P. Ha & S.-H. Song, 2013; E.-G. Lee & S.-S. Cho, 2014),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고 있는 상태(J. Y. Park & C. S. Lee, 2013)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은 생활만족도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울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포괄해서 보는 연구(J. Y. Park & K. S. Kim, 2012; M. Sung, Y. Choi, & J. Lee, 2014)와, 자신의 삶과 자아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와

긍정적 심리 기능을 강조하는 Ryff(1989)의 심리적 복지감 척도를 사용한 연구(G.-H. Han & J.-Y. Son, 2012)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공존한다는 Bradburn(1969)의 주장에 근거하여,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인 측면은 생활만족도로, 부정적인 측면은 우울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 평가척도인 생활만족도는 초기에는 심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시작되었으나 (Pavot & Diener, 1993), 이후 현재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T. H. Kim, 1998)으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감의 부정적 측면으로써 사용된 우울은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놓인 개념이다. 즉 우울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의 하나로 단순한 슬픔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과 같은 정서 상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심리 상태를 말한다(M.-K. Jung & K.-M. Lee, 2010). 노년기에 경험하는 우울증상은 만성질환이나 인지적 장애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거나 개별적 유병상태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다(G. S. Alexopoulos, K. Buckwalter, J. Olin, R. Martinez, C. Wainscott, & K. R. R. Krishnan, 2002). 특히 사회적 관계수준이 비교적 약한 단독거주 노인은 상대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는데(K. Kawai, 2002; E. Kobayashi et al, 2011), 이는 단독거주 노인으로 하여금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K. L. Chou & Chi, I, 2000; D. Russell & J. Taylor, 2009). 따라서 우울은 단독거주 노인이 느끼는 심리적 복지감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특성(가처분소득, 생활비충족, 주택소유, 주생활 결핍, 식생활 결핍), 건강 특성(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가족관계 특성(물리적 갈등, 비물리적 갈등), 사회적 자원 특성(공적연금수급, 복지서비스)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과 생활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주요 특성이 된다. 건강 특성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이 된다. 또한 물리적으로는 단독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에서는 가족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가족주의가 잔존해 있으므로 가족은 물리적 동거와는 무관하게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관계 특성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 자원 특성은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상호호혜성이나 공정성의 규범에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각 특성 내 변수가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경제적 특성인 가처분소득, 생활비 충족, 주택소유, 주생활 결핍, 식생활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이 얻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개인 또는 단체로의 이전 등 비소비 지출을 공제하고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Statistics Korea, 2015). 가구를 구성하는 성원이 독립적으로 생계유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가처분 소득은 타인에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의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될 것이다.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들(K.-G. Park, H.-S. Goo, S.-H. Park, & S.-K. Kang, 2003)에서는 수입이 많거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고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W. Jeong & S. Jeong, 2011)에서도 가처분 소득을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충족은 월평균 생활비와 대상자가 느끼고 있는 적정 생활비의 수준을 비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활비는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활비에 대해 개인이 갖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이 인식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주거지의 안정적 확보 여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실패함, 열악함을 드러내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Y. Shim, 2003). 그러므로 주택소유는 생활의 물적 토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노년기의 생활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행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C. W. Kwon, 2014). 따라서 주생활 결핍은 주택소유와는 다른 차원에서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될 것이다. 식생활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기초가 되

는 체력 유지와 관련되며, 노년기의 식생활 결핍은 질환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식생활 결핍은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단독거주 노인은 다른 거주 유형의 노인과 비교했을 때 영양상태가 좋지 않거나(S. W. Yim, Y. H. Kim, & H.-M. Son, 2014)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K. S. Yim & T. Y. Lee, 2004), 이러한 식생활 상태는 우울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Y. J. Yang, 2015; J. H. Kim & Y. M. Jung, 2002)되고 있다.

두 번째,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건강 특성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건강상태란 각 개인이 처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WONCA Classification Committee, 1988). 따라서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토대가 되면서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건강 지표보다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인식이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노년기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S. Hu & J. Kim, 2011; S.-H. Jang, 2006; S. L. Lee, 2016; K.-G. Park et al, 2003),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좋을수록(S. Hu & J. Kim, 2011)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성질환은 일차적으로 과중한 의료비 지출 및 간병, 부양을 요구하여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S. Y. Hwang, 1994). 또한 이러한 만성질환은 단독거주 노인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이 될 것이다. 실제 연구들(O. K. Shcilling, H. W. Wahl, & F. Oswald, 2013)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심리적 복지감 가운데 우울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가족관계 특성인 가족과의 물리적 갈등과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노년기는 은퇴로 인해 물적 자원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친척과 인척, 지인의 죽음에 따라 인적 자원이 감소되면서 가족관계가 중요해진다(S. Lee, 2016). 실제 관련 연구를 보면, 가족관계 속에 구성된 역할(M.-H. Kim & J.-W. Moon, 2013)이나 가족관계에서 오는 만족도(J. Yoo & H. Sung, 2009)는 노년기 우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노년기 생활만족도 수준이 다른 것으로 실증되었다(Y.-B. Kim & J.-S. Park, 2003).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노년기에도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거주유형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갈등은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부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네 번째,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사회적 자원 특성인 공적연금수급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노년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Y.-G. Yoo, S.-H. Ko, K.-B. Kim, & S.-H. Chung, 2004). 특히 단독거주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경로가 될 수 있는 가족 및 이웃의 지원이 다른 거주 유형을 갖는 노인에 비해 낮았다(K. S. Ahn, 2005; I. S. Jang & S. M. Kim, 2002; S. O. Park et al, 2003). 그러므로 공적연금수급은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는 물질적인 지원의 형태를 넘어 노인과 관계하고 있는 가족, 노인이 속해있는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와 관련한 공공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S. Shin, 2012). 따라서 복지서비스는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단독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변인을 노년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5년도 제1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에서 가구형태를 '단독'으로 응답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 1,36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구축한 것으로,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다양해지는 빈곤층의 규모 및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따라 능동적으로 정책을 구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노년시기별 65세 이상 단독거주 노인의 표본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본 자료를 통해 전기 노인의 경우 457명(33.5%), 중기 노인의 경우 731명(53.6%), 후기 노인의 경우 176명(12.9%)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심리적 복지감은 생활만족도와 우울이라는 하위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의 만족수준을 묻는 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할 수 있다. 응답은 7점에서 35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단독거주 전기 노인이 .78, 중기 노인이 .77, 후기 노인이 .78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우울은 Radloff(1977)가 고안한 우울 척도(Center ES-D)척도의 측정항인 1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주일 동안 우울 증세를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드물게/없음' 1점에서부터 '대부분/항상' 4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은 11점에서 44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을 더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단독거주 전기 노인이 .88, 중기 노인이 .88, 후기 노인이 .89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독립변수를 경제 특성 변인, 건강 특성 변인, 가족관계 특성 변인, 사회적 자원 특성 변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경제 특성 변인은 가처분소득, 생활비충족여부, 주택소유, 주생활 결핍, 식생활 결핍 변수로 구성하였다. 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 값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생활비충족여부는 조사 시기 당시 1년 동안 지출한 총 생활비와 1달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생활비를 비교하여, 현 생활비 수준이 적정생활비 수준보다 낮은 경우 0점, 같거나 높은 경우 1점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주택소유는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0점, 자가를 소유한 경우 1점으로 코딩하였다. 주생활 결핍은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경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해 전기 및 수도 등 공공재가 단절된 경험,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등 주거생활과 관련된 4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별로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경우 0점, 경험이 있는 경우 1점으로 코딩하였다. 식생활 결핍은 경제적인 이유로 식료를 구입하지 못한 경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

한 경험 등 2문항을 활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 0점에서부터 '자주 그렇다' 2점까지 응답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 결핍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건강 특성 변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한 문항으로, '아주 건강하다'로 응답한 경우 5점부터 '건강이 아주 안 좋다'로 응답한 경우 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해 투병 및 투약을 한 경험으로 측정하여,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경우 0점, 3개월 미만 내로 투병 및 투약을 한 경우는 1점, 3개월 이상부터 6개월 미만까지 투병 및 투약을 한 경우는 2점, 6개월 이상 투병 및 투약을 한 경우는 3점으로 코딩하였다.

가족관계 특성 변인은 가족과의 물리적 갈등과 비물리적 갈등 척도로 구성하였다. 가족과의 물리적 갈등은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등 2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할 수 있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2점에서부터 10점 내에서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물리적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과의 물리적 갈등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전기 노인이 .73, 중기 노인이 .70, 후기 노인이 .82였다.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은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 한다',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 한다'라는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할 수 있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3점에서부터 15점 내에서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전기 노인이 .70, 중기 노인이 .70, 후기 노인이 .69였다.

사회적 자원 특성 변인은 공적연금수급과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구성하였다. 공적연금수급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소득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 수령하는 경우에는 1점으로 코딩하였다. 복지서비스 이용은 생계비 또는 생계보조수당 지원, 의료비 지원, 식료품 및 의류 등 물품지원, 청소 및 세탁 등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집수리 및 도배 등 주택관련 서비스, 직업훈련 / 취업상담 / 취업알선 서비스, 상담서비스, 생계 및 생업 등을 위한 대출 및 융자 서비스, 개인발달계좌개설 서비스 등 총 10가지 복지서비스 항목의 이용 여부로 측정하였다.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0점,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1점으로 코딩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경제적 특성, 건강 특성, 가족관계 특성, 사회적 자원 특성 변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은 통제하였다. 성별은 여성은 0점, 남성은 1점으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인 경우 0점, 중졸 이상인 경우 1점으로 코딩하였다. 거주지역은 군, 도 농복합군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0점,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1점으로 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연구문제 1>인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생활만족도, 우울) 수준에서 보이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ANOVA 분석을 한 뒤, 추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인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생활만족도,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노년시기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하였으며, 변수의 분산팽창지수는 3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그 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 등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세 집단 모두에서 여성의 비율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전기 노인의 경우 84.9%, 중기 노인의 경우 86.6%, 후기 노인의 경우 83.0%였다. 연령의 경우 전기 노인의 평균 연령은 70.51세, 중기 노인의 평균 연령은 79.31세, 후기 노인의 평균 연령은 87.70세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의 비율이 세 집단 모두에서 높았다. 즉 전기 노인의 경우 76.6%, 중기 노인의 경우 86.0%, 후기 노인의 경우 89.7%가 초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과반수였다. 즉 전기 노인의 경우 72.6%, 중기 노인의 경우 64.2%, 후기 노인의 경우 56.8%가 시 이상의 광역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경제 특성 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처분 소득은 전체 평균 1003.79만원 수준이었으며, 전기 노인이 1194.5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기 노인이 940.01만원, 후기 노인이 773.44만원으로 가장 낮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cross developmental stages (N=1,364)

General characteristics		Total	Young-old	Mid-old	Old-old
		Frequency (%) / Mean(SD)			
Gender	male	497(14.4)	69(15.1)	98(13.4)	30(17.0)
	female	1167(85.6)	388(84.9)	633(86.6)	146(83.0)
	Age	77.45(6.25)	70.51(2.77)	79.31(2.74)	87.70(2.59)
Education	less than elementary school	1137(83.4)	350(76.6)	629(86.0)	158(89.7)
	more than middle school	227(16.6)	107(23.4)	102(14.0)	18(10.3)
Location	city	901(66.1)	332(72.6)	469(64.2)	100(56.8)
	county	463(33.9)	125(27.4)	262(35.8)	76(43.2)
Economic characteristics	Disposable income(Unit=Won)	1003.79(653.27)	1194.52(762.92)	940.01(592.23)	773.44(422.85)
	Cost of living(Satisfied=1)	385(28.2)	144(31.5)	197(26.9)	44(25.0)
	House ownership(Owned=1)	633(46.4)	250(54.7)	336(45.9)	47(26.7)
	Housing deficiency	.05(.29)	.05(.30)	.05(.30)	.06(.26)
	Dietary deficiency	.22(.62)	.17(.52)	.24(.66)	.06(.61)
Health Characteristics	Subjective health	2.68(.80)	2.81(.81)	2.62(.78)	2.60(.79)
	Chronic illness	2.73(.84)	2.61(.98)	2.79(.74)	2.78(.78)
Family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2.42(.77)	2.39(.79)	2.44(.76)	2.41(.77)
	Non-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5.30(1.66)	5.26(1.63)	5.27(1.65)	5.55(1.76)
Social resource Characteristics	Public pension(Pensionable=1)	1302(95.5)	429(93.9)	702(96.0)	171(97.2)
	Welfare service	2.08(.91)	1.95(.93)	2.11(.88)	2.33(.88)

았다. 생활비 충족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연구 대상의 28.2%가 충족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기 노인의 경우 31.5%, 중기 노인의 경우 26.9%, 후기 노인의 경우 25.0%가 충족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택소유는 연구대상의 46.4%가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전기 노인의 경우 과반수인 54.7%가 자가 소유였으며, 중기 노인의 경우 45.9%, 후기 노인의 경우 26.7%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은 주생활이나 식생활에서 결핍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건강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 중간 수준(3점) 이하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전기 노인의 경우 2.81점, 중기 노인의 경우 2.62점, 후기 노인의 경우 2.60점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성질환으로 인해 투병 및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가족과의 물리적 갈등 수준은 중간 수준(6점) 이하로 낮아, 전기 노인의 경우 2.39점, 중기 노인의 경우 2.44점, 후기 노인의 경우 2.41점이었다.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 수준도 중간 수준(9점) 이하로 낮아, 전기 노인의 경우 5.26점, 중기 노인의 경우 5.27점, 후기 노인의 경우 5.55점이었다. 사회적 자원 특성 변인의 경우, 공적연금 지급비율이 전체 95.5% 수준이며, 집단별로는 후기 노인이 97.2%로 가장 높고 중기 노인과 전기 노인이 각각 96.0%, 93.9%였다. 복지서비스 수혜 정도는 평균 2.08건이며, 후기 노인이 2.33건, 중기 노인이 2.11건, 전기 노인이 1.95건이었다.

2.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차이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 측면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전기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은 23.24점(표준편차 3.48점), 중기 노인은 22.75점(표준편차 3.45점), 후기 노인은 22.52점(표준편차 3.43점)으로, 세 집단 모두 중간 수준(중간값 21점) 이상으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는 있어, 단독거주하고 있는 전기 노인

이 후기 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95, p<.05$). 다음, 심리적 복지감의 부정적 측면인 우울을 살펴보면, 전기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의 평균값은 16.65점(표준편차 5.33점), 중기 노인은 18.50점(표준편차 5.87점), 후기 노인은 19.28점(표준편차 6.42점)으로, 세 집단 모두 중간 수준(중간값 27.5점) 이하의 수치를 보여, 일상생활에서 심각하게 우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는 있어, 동일하게 단독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기 노인이 중기나 후기 노인에 비해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9.54, p<.001$).

3.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예측 변수

1)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생활만족도 예측변수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중 긍정적 측면인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전기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건강상태($\beta=.368, p<.001$),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beta=-.299, p<.001$), 가처분소득($\beta=.161, p<.001$), 주택소유($\beta=.156, p<.001$), 식생활 결핍($\beta=-.098, p<.05$), 생활비 충족($\beta=.080, p<.05$), 공적연금수급($\beta=.077, p<.05$)에 의해 예측되었다.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과 비물리적 갈등이 적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식생활 결핍 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비가 충족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단독거주 중기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건강상태($\beta=.381, p<.001$),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beta=-.316, p<.001$), 가처분소득($\beta=.177, p<.001$), 식생활 결핍($\beta=-.093, p<.01$)이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식생활 결핍 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단독거주 후기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건강

Table 2.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cross developmental stages (N=1,364)

	Young-old	Mid-old	Old-old	F-value
	Mean (SD)			
Life satisfaction	23.24(3.48) a	22.75(3.45) ab	22.52(3.43) b	3.95*
Depression	16.65(5.33) a	18.50(5.87) b	19.28(6.42) b	19.54***

* $p<.05$, ** $p<.01$, *** $p<.001$

상태($\beta=.418, p<.001$),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beta=-.359, p<.001$)이 예측요인이었다.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가족과 비물리적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2)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우울 예측변수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중 부정적 측면인 우울을 예측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전기 노인의 우울은 주관적 건강

Table 3.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of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cross developmental stages (N=1,364)

		Young-old		Mid-old		Old-old	
		b	β	b	β	b	β
Constant		12.177***		16.323***		20.484**	
Economic characteristics	Disposable income	.001	.161***	.001	.177***	.000	.054
	Cost of living	.599	.080*	.337	.043	.202	.025
	House ownership	1.085	.156***	.329	.048	.501	.065
	Housing deficiency	-.019	-.002	-.630	-.054	.794	.059
	Dietary deficiency	-.657	-.098*	-.481	-.093**	-.224	-.040
Health characteristics	Subjective health	1.571	.368***	1.679	.381***	1.806	.418***
	Chronic illness	-.103	-.010	-.510	-.036	-.257	-.020
Family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022	.005	.088	.019	.259	.058
	Non-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638	-.299***	-.662	-.316***	-.701	-.359***
Social resource characteristics	Public pension	.537	.077*	.372	.044	-.211	-.013
	Welfare service	.008	.002	.089	.023	-.142	-.037
Control Variables	Gender	-1.597	-.165***	-.637	-.063*	1.008	.111
	Age	.120	.096*	.062	.049	.004	.003
	Education	.382	.047	-.336	-.034	.088	.008
	Living area	-.183	-.024	-.512	-.071*	.259	.038
F-Value		23.397***		33.002***		6.564***	
R^2 (adj.)		.443(.424)		.409(.397)		.381(.323)	
VIF Range		1.082 ~ 1.726		1.088 ~ 1.811		1.062 ~ 1.768	

$p<.05, **p<.01, ***p<.001$

Table 4. Predictors of Depression of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cross developmental stages (N=1,364)

		Young-old		Mid-old		Old-old	
		b	β	b	β	b	β
Constant		24.303***		30.438***		38.025*	
Economic characteristic	Disposable income	.000	-.057	.000	-.027	-.001	-.081
	Cost of living	.174	.015	-.511	-.039	1.060	.072
	House ownership	-.875	-.082	-.377	-.032	-1.101	-.076
	Housing deficiency	-.800	-.045	2.439	.123**	-.763	-.030
	Dietary deficiency	1.237	.121*	.677	.077	.112	.011
Health characteristic	Subjective health	-2.138	-.327***	-2.658	-.355***	-3.318	-.410***
	Chronic illness	-1.109	-.067	1.229	.051	-.413	-.017
Family relationship characteristic	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735	-.110*	-.208	-.027	-.428	-.051
	Non-physical conflict with family	.517	.158**	.313	.088	.355	.097
Social resource characteristic	Public pension	-.109	-.010	-.376	-.026	3.294	.107
	Welfare service	.090	.016	-.137	-.021	-.848	-.117
Control Variables	Gender	.472	.032	-1.119	-.065	-4.848	-.285***
	Age	-.008	.000	-.089	-.041	-.075	-.030
	Education	-.285	-.023	.777	.046	.113	-.005
	Living area	-.663	-.056	.760	.062	-.760	-.059
F-Value		6.205***		12.542***		4.893***	
R^2 (adj.)		.174(.146)		.208(.192)		.314(.250)	
VIF Range		1.082 ~ 1.726		1.088 ~ 1.844		1.062 ~ 1.768	

$p<.05, **p<.01, ***p<.001$

상태($\beta = -.327, p < .001$),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beta = .158, p < .01$), 식생활 결핍($\beta = .121, p < .05$), 가족과의 물리적 갈등($\beta = .110, p < .05$)이 예측요인으로 실증되었다. 즉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식생활 결핍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과 비물리적으로 갈등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가족과 물리적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는 낮았다.

둘째, 단독거주 중기 노인의 우울은 주관적 건강상태($\beta = -.355, p < .001$)와 주생활 결핍($\beta = .123, p < .01$)이 예측요인이었다. 즉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주생활 결핍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았다.

셋째, 단독거주 후기 노인의 우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예측요인이었다($\beta = .410, p < .001$). 즉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았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를 이룬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을, 노년시기별로 고찰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제10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단독 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364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변수를 고찰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은 삶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생활만족도와 우울로 측정하였다.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경제 특성 변인(가처분소득, 생활비충족여부, 주택소유, 주생활 결핍, 식생활 결핍), 건강 특성 변인(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 가족관계 특성 변인(가족과의 물리적 갈등, 비물리적 갈등), 사회적 자원 특성 변인(공적연금수급, 복지서비스 수혜)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련성을 보고자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거주지역은 통제하였다.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통계치와 F값, 회귀계수 등을 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독거주 노인은 노년시기에 상관없이 세 집단 모두 생활에 만족한다. 그러나 집단 차이는 있어 단독거주하고 있는 전기 노인이 후기 노인에 비해 생활에 더 만족한다. 또한 단독거주 노인은 노년시기에 상관없이 세 집단 모두 우울을 경험하는 수준은 낮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는 있어, 동일하게 단독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기 노인이 중기나 후기 노인에 비해 우울을 덜 경험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 영역인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H.-K. RLee & K.-S. Ha, 2012; I. J. Lee, 2011; N.-Y. Yang & S.-Y. Moon, 2012)과 우울을 포함한 정신 건강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H.-R. Kim, 2012; I. J. Lee, 2011; N. H. Yee, 2014)을 어느 정도는 지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단독거주 노인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연령과 심리적 복지감이 정적이든 부적이든 방향에 상관없이 직선적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노년시기별 차이가 있어 전기 노인과 중기 및 후기 노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단독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변수는 노년시기별 차이가 있다.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인 측면인 생활만족도의 경우, 단독거주하고 있는 전기 노인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과 비물리적 갈등이 적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많을수록,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식생활 결핍 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비가 충족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 단독거주하고 있는 중기 노인의 경우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식생활 결핍 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단독거주하고 있는 후기 노인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가족과 비물리적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이처럼 단독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물적 토대인 가처분소득이나 생활비, 공적연금수급은 노년기 내에서도 비교적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대인 전기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중 긍정적 영역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이나 사회의 제도적 지원에 의존을 해야 하는 시점에 접어들면, 주거의 소유 여부 등은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변수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타인이나 사회적 지원 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시기에서는 주관적인 건강과 가족과의 갈등이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과 관련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심리적 복지감의 부정적인 측면인 우울의 경우, 단독거주하고 있는 전기 노인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할수록, 가족과 비물리적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식생활 결핍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과 물리적으로 갈등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다. 단독거주하고 있는 중기 노인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할수

록, 주생활 결핍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다. 단독거주하고 있는 후기 노인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을 경험한 정도가 낮다.

이처럼 단독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 수준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심리적 복지감 중 부정적 측면인 우울과 주관적 건강과의 관련성이, 노년시기와 상관없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노년시기 중 상대적으로 타인이나 사회적 지원 제도에 의존할 가능성이 낮은 전기 노인의 경우 가족과의 갈등이 우울과 관련되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족과의 비물리적 갈등은 단독거주 노인을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과의 물리적 갈등은 오히려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거주하고 있는 전기 노인의 경우,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가족 간 서로 때리는 등의 부정적 상호작용도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주관적 건강수준이 노년기 생활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S.-H. Jang, 2006; H.-J. Jeong, T.-H. Kim, & D.-S. Lee, 2000; H. K. Kim, H. J. Lee, & S. M. Park, 2010; C.-G. Kim, 2015)과 가족과의 결속도나 소통 수준 또는 가족의 지지가 노년기 생활만족도와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K.-W. Cho, 2002; E. Y. Choi, J. Y. Kim, & H. S. Kim, 2003; H.-J. Jeong, T.-H. Kim, & D.-S. Lee, 2000)이 노년시기에 상관없이 단독거주하는 노인에게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볼 때, 동일하게 단독가구를 이룬 노인의 경우에도 심리적 복지감은 노년시기별로 차이가 있어, 전기 노인의 경우 경제적 특성이나 건강 특성, 가족관계 특성, 사회적 자원 특성 모두가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였으나 중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특성이나 사회적 자원 특성보다는 단독가구를 이루면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강 특성과,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살지만 가족관계 특성이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년기에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단독거주 노인의 경우 전기노인과 중기 및 후기 노인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기 노인이 되는 75세를 기점으로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되는 변인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을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만 65세 이상의 노년 집단을 단일 범주로 인식하면서 일자리 지원, 소득 보장, 건강 지원, 사회적 지원(사회참여 지원, 사회 환경 지원)을 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이러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100세 시대에 맞추어 노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재설계하고자 한다면, 노년시기별 다양성을 밝혀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근거중심적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의 노인 정책은 노년시기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며, 전기 노인의 경우 노인의 특성보다는 중년기에 특성과 연결되는 만큼, 75세를 기점으로 그 이후 집단이 보이는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변인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건강’과 ‘가족’이 75세 이후의 고령자를 위한 노인 정책의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치매검진 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양보험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가족 간 친밀감을 향상시키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년기 심리적 복지감 향상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가족 관계는 일상적인 갈등이 고착화되면서 노년기에 들어서 왜곡되거나 관계의 질이 저하될 여지가 큰 만큼, 모든 생애주기에 맞춤형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즉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가족정책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며, 구체적인 정책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변인을 밝혀냈으나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횡단적으로 분석하여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요인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종단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축적된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장기종단적인 맥락에서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노년시기별 단독거주하고 있는 표본을 통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패널자료의 설문 내용이 이미 한정되어 있어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되는 변수를 풍부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노년시기별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초점을 둔 조사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방

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변인이 75세 이후에는 어떤 맥락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 이들의 목소리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생활만족도와 우울이라는 하위 영역으로 따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와 우울도 상호 관련을 갖는 변수인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서 이들 변수 간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독거주 노인의 다양성에 입각해서 노년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단독거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hn, K. S. (2005).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of married couples and single households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1), 1-19.
- Alexopoulos, G. S., Buckwalter, K., Olin, J., Martinez, R., Waincott, C., & Krishnan, K. R. R. (2002). Comorbidity of late life depression: An opportunity for research on mechanisms and treatment. *Biological psychiatry*, 52(6), 543-558.
- Bae, J.-M. (2012).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by SEM: Focusing on policemen and fire fighters.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6(2), 109-117.
- Borg, C., Hallberg, I. R., & Blomqvist, K. (2006).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people (65+) with reduced self care capacity: the relationship to social, health and financial aspec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5(5), 607-618.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ha, M. (2015).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f the elderly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eonam University, Namwon, Korea.
- Cho, K.-W. (2002). Study on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of the female single age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17, 85-125.
- Choi, Y.-M., & Lee, S.-J. (2003).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ocial support network for single home-owned old peopl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2, 193-217.
- Choi, Y.-J. (2009).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by age*. Unpublished doctoral thesis.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E. Y., Kim, J. Y., & Kim, H. S. (2003). The correlational study on health-promoting behavior,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support of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5(1), 7-16.
- Chou, K. L., & Chi, I. (2000). Comparison between elderly Chinese living alone and those living with oth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3(4), 51-66.
- Diener, E. D.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nkvist, Å., Ekström, H., & Elmståhl, S. (2011). What factors affect life satisfaction among the oldest-old?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4(1), 140-145.
- Ha, K.-P., & Song, S.-H.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da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7), 278-289.
- Han, K., & Yun, S. (2001). Living arrangem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1(2), 163-178.
- Han, G.-H., & Son, J.-Y. (2012). Retirement process, economic and relational resourc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baby boomer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38, 291-330.
- Han, S.-S., Kang, S.-W., & Jeong, S.-H. (2012). Experiences of depressive symptom and suicidal thinking between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elderly coupl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3), 29-38.
- Hu, S., & Kim, J. (2011). Analysis of multi-level effectiveness on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at KLIPS 2006.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2), 407-418.

- Hwang, S. Y. (1994). *A Study on social worker's discharge planning process with the chronically ill*.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S.-H.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8(1), 36-46.
- Jang, I. S., & Kim, S. M.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and death anxiety in elde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4(1), 80-92.
- Jeong, K. H. (2011). Living to one hundred: Old-age criteria and policy task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80, 16-27.
- Jeong, J. H., & Kim, J. S. (2015). The effect of abuse experience and coping styles on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6(1), 42-51.
- Jeong, H.-J., Kim, T.-H., & Lee, D.-S. (2000). Related variables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Chonbuk-do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 49-70.
- Jeong, W., & Jeong, S. (2011).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by income levels among single elderly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4), 1119-1134.
- Jung, M. K., & Lee, K. M. (2010). A path analysis of stress, depression, optimism, and resilience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2), 629-642.
- Kang, E. J. (2005). Factors related to suicide ideation by age group.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07, 81-86.
- Kang, H. Y., Seo, N. S., & Kim, Y. H. (2004). Health pattern of elderly according to age group who living alone in an urban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6), 1057-1068.
- Kim, B. J., & Choi, Y.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chronic diseases, and depression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Educational Gerontology* 41(6), 417-427.
- Kim, C.-G. (2015).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s by health statu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7(2), 108-119.
- Kim, C.-H. (2014). *Factors affecting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young-old and old-old elderly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Korea.
- Kim, C.-S. (2007). Social theories and discourses on population aging.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7(3), 667-690.
- Kim, H. K., Lee, H. J., & Park, S. M. (2010).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0(2), 279-292.
- Kim, H. M., & Choi, Y. H. (2011).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elderly vulnerable people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2(4), 355-364.
- Kim, H.-R. (2012).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its correlates among young-old and old-old elderly people with poverty in Korean urban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2(3), 924-954.
- Kim, J. H., & Jung, Y. M. (2002). A study on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in living alon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4(1), 16-26.
- Kim, K. B., Lee, Y. J., & Sok, S. (2008).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between the elderly living with family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 765-777.
- Kim, K.-T., Choi, S.-S., Park, M.-J., Park, S.-H, Ko, S.-H., & Park, H.-S. (2011). The effect of family structures and psycho-social factors on suicidal ideation of senior citizen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2, 205-228.
- Kim, M.-H., & Moon, J.-W. (2013). The impact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10, 1-26.
- Kim, M. Y. (1997). A study on the functional health status of living-alone elderly.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1(2), 94-105.
- Kim, S. O., Park, M. H., & Kim, Y. J.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depression and self-integrity of the rural elderly women.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8(2), 161-169.

- Kim, Y.-B., & Park, J.-S. (2003). The family network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4(1), 169-185.
- Kim, Y.-H. (2013).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age among vulnerable elderly wome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3), 1342-1349.
- Kim, Y.-R., Song, C.-S., & Lee, C.-S. (2013). *The community-based care support plan for elderly single household-the case study of elderly community car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im, Y. S., & Kim,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death anxiety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1), 275-289.
- Kawai, K. (2002). Social isolation, security and welfare problems among the elderly in urban areas: Focusing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single-living elderly in Minato Ward, Tokyo. *Shakai Seisakugaku*, 7, 118-131.
- Kobayashi, E., Fujiwara, Y., Fukaya, T., Nishi, M., Saito, M., & Shinkai, S. (2011). Social support avail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socially isolated elderly: Differences by living arrangement and gender. *Japanese journal of public health*, 58(6), 446-456.
- Ko, S. D., Son, A. R., & Choi, Y. S.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geriatric depression to the elderly's gener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6(1), 3-15.
- Ko, Y.-M. (2013).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status of elderly living alone in community*. Unpublished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C.-W. (2014). *A study on the residential housing welfare law for the aged*. Unpublished doctoral thesis.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 Lee, E.-G., & Cho, S.-S. (2014). Relations among the social activity,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urban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7), 196-216.
- Lee, H.-J. (2013). Longitudinal changes in depression in older adults: Differences across age groups and risk facto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61, 291-318.
- Lee, H. W. (1998). *Theory of senior citizen welfare: Theory and practice*. Seoul: Yu-pung Press.
- Lee, I. J. (2011).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health, life satisfaction, and determinants of young-old, mid-old, and old-ol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Lee, J.-K., & Kim, J.-H. (2013). A study on the need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Seoul. *Seoul Studies*, 14(3), 191-211.
- Lee, J.-L. (2012). The effects of acceptance-rejection of parents in law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husbands and wives: Using API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4), 1-11.
- Lee, G.-S., & Lim, W.-K. (2012). Effects of the leisure activity and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291-306.
- Lee, M.-R. (2012). Mediated effect of family support in influence route of health condition and self-integration of old people: Focused on difference by age group.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0), 280-290.
- Lee, S. L. (2016). The influence of elders' demographic-sociological characteristic, self-esteem, health state on satisfaction with lif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8(1), 51-68.
- Lee, S. S., & Cha, Y. E. (2003).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upport, public support and the depression of the functional disabled elderl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3), 165-180.
- Lee, S. (2016). *A study of effects of family relation on economic satisfaction effects of the later life preparation on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Korea.
- Lee, S., Kim, H., Jung, Y.-I., Choi, Y.-H., Lee, K., Yu, S.-D., & Hong, Y.-C. (2014). Environmental exposure and health inequality by socio-economic position among older peopl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4(2), 349-367.
- Lee, Y.-K., & Jung, M.-H. (2013).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n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1, 111-134.
- Lyu, I. A. (2008). A study of life satisfaction level concerning the life management assistant dispatch project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21 Century Society Welfare*, 5(1), 159-18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Integrated support for living*

- alone elderly.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71273&SEARCHKEY=TITLE&SEARCHVALUE=독거노인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The elderly welfare act.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129&efYd=20161230#0000>.
- RLee, H.-G., & Ha, K.-S. (2012). Effect of the daily living factor on the satisfaction of life for the aged.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6), 280-292.
- Russell, D., & Taylor, J. (2009). Living alone and depressive symptoms: The influence of gender, physical disability, and social support among Hispanic and non-Hispanic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1), 95-104.
- IM, H. (2015).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of economic factors, life-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one person household*. Unpublished doctoral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Oh, I.-G. (2012). The effect of hopeless depression on stress in elderly women who live alon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7(4), 237-255.
- Oh, M.-L. (2015). *A study of the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isabled women*. Unpublished master's degr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Oh, S., & Ko, Y. (2015).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and related factors in Korean elderly: Focused on socioeconomic status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6(2), 140-149.
- Oh, Y. E., & Lee, J. H. (2011). The effect of adult-children support network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single and couple elderly households in rural area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2(4), 557-572.
- Park, J. I., Park, T. W., Yang, J. C., & Chung, S. K. (2016).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elderly Koreans: The role of chronic illnes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cognitive impairment. *Psychogeriatrics*, 16(1), 62-69.
- Park, J. Y., & Kim, K. S. (2012). The impact of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single par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17(1), 23-46.
- Park, J. Y., & Lee, C. S. (2013).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men immigra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 405-412.
- Park, K.-G., Goo, H.-S., Park, S.-H., & Kang, S.-K.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degree of interest in health status, the personal health management, and the life satisfaction outcomes of the elderly. *Communication Disorders*, 26(1), 141-162.
- Park, N. S., Jang, Y., Lee, B. S., & Chiriboga, D. A. (2015).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Korean Americans: Do chronic disease and functional disability modify it?.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6(2), 174.
- Park, S. O., Paik, H. J., Kim, C. M., Moon, J. H., Choi, S. Y., Kim, J. S., & Kim, A. J. (2003). A study 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health-promoting lifestyle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4(1), 144-15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illing, O. K., Wahl, H. W., & Oswald, F. (2013). Change in life satisfaction under chronic physical multi-morbidity in advanced old age: Potential and limits of adapta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1), 19-36.
- Schulz, R., & Heckhausen, J. (1996). A life span model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psychologist*, 51, 702-714.
- Seo, I.-K., & Cho, H.-C. (2013).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 A comparative study on people who live alone and those who live with fami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1, 135-162.
- Seo, K. J.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ctivity characteristics and person-environment fi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people under participation in job*

- activities: Moderating effects of work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degree. Hoseo university, Chunan, Korea.
- Shin, G. H. (2012). A study on family disorganization type of elderly people live alone. *Korean Journal of Social Policy*, 19(4), 79-104.
- Shim, Y. (2003). An analysis of the economic well-being of elderly households based on housing ownership and housing cos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2(1), 25-38.
- Shin, H. H., Choi, S. W., Park, J., & Han, M. A. (2014).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4(4), 751-762.
- Shin, G., & Kim, E. K.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vulnerable elderly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3), 419-431.
- Shin, S. (2012). *Study on the competence, process, and performance of the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senior: Focused on the private delivery system and its effectiveness within three cities of Gyeonggi provin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 Son, J.-A., Suh, S.-R., & Kim, M. (2015).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rural elde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7(1), 56-64.
- Statistics Korea (2012). *Household projections for Korea : Household by household head's age and household type*. Vital statistics division(101062)
- Statistics Korea (2015).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ial welfare research*. Welfare statistics division(930001)
- Statistics Korea (2016).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Vital statistics division(101033)
- Sung, J. S., & Park, C.-S. (2005).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7(1), 71-78.
- Sung, M., Choi, Y., & Lee, J. (2014). Portraits of childless couples in South Korea I : Psychological well-being, couple relationships,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by types of childlessness. *Family and Culture*, 26(1), 40-71.
- Sherman, A. M. (2003). Social rela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dults with knee osteoarthritis. *Social science & medicine*, 56(2), 247-257.
- Tsai, P. F. (2005). Predictors of distress and depression in elders with arthritic pai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1(2), 158-165.
- WONCA Classification Committee (1988). *Functional status measurement in primary care*. New York: Spinger-Veriag New York Inc.
- Yang, N.-Y., & Moon, S.-Y. (2012). The effects of suicidal thought on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1), 515-524.
- Yang, O.-N. (2005). An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of the poor according to in-home service: Including the households of the elderly. *Social Welfare Policy*, 22, 5-32.
- Yang, Y. J. (2015).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utrient intakes and mental health status of older Korean adults depending on household food security: Based on the 2008-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0(1), 30-40.
- Yee, N. H. (2014). *Analysis of determinants on depression changes of the elderly pop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Yim, K. S., & Lee, T. Y. (2004). Socio-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nutrients intake of elder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Nutrition*, 37(3), 210-222.
- Yim, S. W., Kim, Y. H., & Son, H.-M. (2014). Risk for dysphagia and nutritional status in community-dwelling elde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6(3), 288-298.
- Yoo, J., & Sung, H. (2009).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717-728.
- Yoo, Y.-G., Ko, S.-H., Kim, K.-B., & Chung, S.-H. (2004).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self esteem in elderly.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6(1), 102-11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Elderly policy*.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sotong/2016/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90301

Received: November 4. 2016

Revised: January 24.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7